

여당 인기 반영...지역구마다 민주당 후보자 복적

■광주·전남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 날 누가 어디에 등록했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17일 광주와 전남에서는 42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정가도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후보군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선거위에 따르면 광주 지역구별로는 동구남구갑 3명(민주당 윤영택·이정희·최영호), 동구남구을 1명(민주당 이병훈·김해경), 서구갑 2명(자유한국당 하현식·무소속 김명진), 서구을 1명(민주당 이남재), 북구갑 2명(민주당 정준호·조오섭), 북구을 4명(민주당 이형식·전진숙, 민중당 윤민호, 무소속 노남수), 광산갑 2명(민주당 이우빈, 민중당 정희성), 광산을 2명(민주당 김성진·민형배) 등이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아끼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인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확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확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

광주 동구남구갑 3명

서구갑 2명·북구을 4명 등록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시작

김병원·김승남·노승일 등

후보군 잇단 선거출마 선언

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선거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 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한다.

한편 17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농협의 힘만으로 산적한 농촌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 시민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나주·화순, 나아가 호남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어 정권 재창출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 전 위원장은 1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승남 전 위원장은 "고통받는 농어촌과 서민이 다시 일어서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농어업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과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서 바꾸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제반 사회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사명감으로 헌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노씨는 17일 "더 큰 적폐와 싸우겠다"며 총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뼈를 묻을 곳은 광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사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2020. 4. 15.(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 2019. 12. 17.(화)~
시간 : 매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장소 : 위원회 회의실 (1층)



1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후보등록을 마친 이남재 더불어민주당(서구을), 하현식 자유한국당(서구갑), 김명진 대한신당(서구갑) 후보(왼쪽부터)가 서류를 접수한 후 증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6선·국회의장 출신 경제통...“전방위적 소통 노력 펼치겠다”

새 총리 후보에 정세균 지명
문 대통령 국정 장악 의지
내치 권한 책임총리 역할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후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와 '협력'에 맞추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과 경제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고서 총리 인선을 결단했다는 점, 향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역시 이런 '양대 기둥'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드

러낸 발언이다. 정 후보자 역시 이에 발맞춰 인선발표 직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을 지내는 등 정치적 중립감을 감안할 때 일부에서는 정 후보자가 내치(內治) 영역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책임 총리', 더 나아가 사실상 '분권형 총리'로 자리를 잡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가 후임 총리로서 갖는 강점은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우선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를 두루 거친 6선 의원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거친 경제통으로 즉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인사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정 후보자에 대해 "경제를 잘 아는 분이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각 부처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와 국회 간 협치, 여권과

야권의 협치를 끌어내는 데도 적임자라는 기대감도 크다. 문 대통령 역시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기에 중진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인사'인 만큼 청문회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6선 의원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경험이 있고 산자부 장관으로 발탁됐을 때에도 검증은 한 차례 거쳤기 때문이다. 나아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데 이어 국무위원들을 이끄는 자리에 무게감 있는 여당 정치인을 배치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엿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향후 정 후보자에게 내치 영역에서 상당부분 권한을 보장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당시 총리에 버금가는 책임총리나 분권형 총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을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라며 총리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이유를 말하며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며 "소통하는 방식에는 정책적 노력 통한 방법, 인적 소통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이런저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소통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삼권분립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전직이긴 하지만 의장 출신이기에 적절한지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에 지명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